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dvancing Free Trade
for Asia-Pacific Prosperity

제36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결과 보고서

2023. 3.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I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36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회의

*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ACTWG) : APEC SCE(경제기술협력위원회) 소속 15개 실무협의단 중 하나로, '05년 한국 주도로 반부패투명성 T/F를 창설, '11년 현재의 SCE 소속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으로 전환됨. 연례적으로 1·3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투명성실무협의단(ACTWG) 회의가 개최됨

□ **일시·장소** : '23. 2. 15-16, 미국 팜스프링스(르네상스 호텔 컨벤션 센터)

□ **주관** :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 **참석자** : 브루나이, 칠레, 멕시코, 중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17개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국)

※ 국민권익위원회 참석자 :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이송미 사무관

□ **주요 결과**

○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발표·공유**

- UN반부패협약 이행 관련, 부패영향평가·종합청렴도평가·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및 UNDP 협업을 통한 '청렴포털' 개도국 지원사업

- 공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 및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현황

○ 미국의 반부패 로드맵(Anti-Corruption Roadmap) 제안

- 미국은 최근 확정된 APEC 다년도 전략계획(2023-26)과 별도로 향후 구체적 반부패 활동(Action Plan)이 반영된 로드맵을 금년도 APEC 주요 성과물로 창출할 것을 제안함

※ 중국, 홍콩은 기존의 선언문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의 중복을 우려하며 별도의 로드맵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타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등은 찬성하는 입장 표명

- 미국은 우리 측과의 회의에서 한국이 2025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로드맵 초안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회람하겠다고 함

□ 회의 의제

제36차 APEC 반부패 및 투명성 전문가 실무그룹(ACTWG) 회의
2023년 2월 15-16일
팜스프링스, 미국

1일차: 2023년 2월 15일	
08:00 - 09:00	등록
09:00 - 09:15	오프닝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ACTWG 의장인 Richard Nephew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의 개회사 • 의장은 ACTWG 대표단을 소개하기 위해 각 APEC 회원국 대표를 초대함 (15분)
09:15 - 09:20	안건 1: 의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ACTWG 대표단의 의제 채택을 모색하고 약정을 설명함 (5분)

09:20 - 09:30	안건 2: APEC 사무국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사무국은 2023년 APEC 프로젝트 업데이트 및 포럼 관리 문제를 보고함 - Ms. Baiq FI Nouvia, ACTWG 프로그램 디렉터(PD) (10분)
09:30 - 09:40	안건 3: 2022년 동안 수행된 작업에 대한 작업 그룹에 대한 2022년 ACTWG 의장 보고서
09:40 - 09:55	안건 4: APEC 작업 - 호스트 경제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최 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주최국 경제(15분)
09:55 - 10:10	안건 5: ACTWG 작업 - ACTWG 2023 작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장의 2023년 작업계획 업데이트 (15분)
10:10 - 10:25	안건 6: ACT-NET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NET 의장의 SOM1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15분)
10:25 - 11:25	안건 7: ACTWG 작업 -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ACTWG 전략 계획 2023 - 2026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trajaya Vision 2040 및 새로 승인된 ACTWG 전략 계획 2023 - 2026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회원국 (60분)
11:25 - 11:35	커피 브레이크 (10분)
11:35 - 12:45	안건 8: ACTWG를 위한 진행 중인/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고 업데이트할 경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의 ACTWG를 위해 진행 중/제안된 프로젝트를 보고 및 업데이트 8.1 중국: ACT-NET 웹사이트 제안 8.2 미국: 뇌물 수수 방지 및 뇌물 수수 금지법 시행에 관한 APEC 원칙: 현황 조사 (70분)
12:45 - 14:15	점심 시간 (1 시간 30분)
14:15 - 15:25	안건 9: 유엔 반부패 협약(UNCAC)과 관련된 반부패 진전 및 발전에 대해 보고하는 경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호주 9.2 칠레 9.3 중국 9.4 인도네시아 9.5 한국

	<p>9.6 말레이시아 9.7 대만 9.6 미국 : 10차 UNCAC 당사국총회 계획 업데이트 (70분: 이코노미당 5-10분)</p>
15:25 - 15:45	커피 브레이크 (20분)
15:45 - 16:55	<p>안건 10: 부패 척결에 관한 베이징 선언 (2014) 및 기타 부패 방지 및 퇴치에 대한 APEC 공약 이행에 대한 반부패 진행 및 개발에 대해 보고할 경제 주체</p> <p>10.1 홍콩 10.2 중국 10.3 말레이시아 10.4 태국 10.5 미국</p> <p>(70분: 이코노미당 5-10분) 대만</p>
16:55 - 17:00	<p>1일차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1일차 회의를 종료하고 2일차 행정정보를 공유함 (5분)
캘리포니아 프리평션 테라스	비공식 모임
1일차 종료	
2일차: 2023년 2월 16일	
09:00 - 09:10	<p>2일차 오프닝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의 1일차 토론 요약 제공 (10분)
09:10 - 10:20	<p>안건 11: APEC 반부패 로드맵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APEC 반부패 로드맵에 대한 계획을 브리핑 및 피드백 요청 (70분)
10:20 - 10:40	커피 브레이크 (20분)
10:40 - 12:00	<p>안건 12: ACTWG 업무 - 부패의 경제적 영향과 민간 부문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윤리 및 기타 경제 관련 부패 측면에 대한 참여 논의 <p>12.1 호주 12.2 칠레 12.3 중국 12.4 한국 12.5 인도네시아 12.6 말레이시아 12.7 미국</p> <p>(80분)</p>

12:00 - 13:00	안건 13: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WG가 전략적 계획을 구현하는 데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다른 APEC 하위 포럼, 민간 부문, 학계, 시민 사회 및 국제 조직)와 현재 협력 및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하는 회원국, APEC 포럼 전반에 참여, 다자간 및 지역 기구와 조정하고 적절하게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립니다 (60분)
13:00 - 14:30	점심 시간 (1시간 30분)
14:30 - 15:40	안건 14: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이니셔티브 및 과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 OECD 14.2 UNODC (70분)
15:40 - 16:00	커피 브레이크 (20분)
16:00 - 16:15	안건 15: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이 있는 경우(15분)
15:15 - 16:30	클로징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의 마무리 및 마무리 발언(15분)

II . 회의 세부내용

《 제36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 결과 》

□ 안건 1: 의제 채택

- 의제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 안건 2: APEC 사무국 보고

- 2023년 ACTWG 업무계획 보고
 - 2023년도 ACTWG 업무계획이 2월에 ACTWG에 의해 승인되었고, APEC SCE(경제기술협력위원회)에 2월에 제출되었음
- ACTWG 2023-2026년 다년도 전략계획 보고
 - 2022. 12. 28. 다년도 전략계획이 ACTWG에 의해 승인되었고, 2023. 1. 25. APEC SCE(경제기술협력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2022 프로젝트 세션 1 주요 일정
 - 컨셉노트 내부제출 마감일 : 3.9(프로젝트 디렉터(PD)에게 제출, 최소한의 공동 스폰서에게 동의를 구할 것, 컨셉노트 승인 시작)
 - 마지막 제출 마감일 : 3.30(PD가 컨셉노트를 배서하여 프로그램 관리자PMU에게 제출함, 4.6-27(APEC 포라는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컨셉노트를 채점해야 함), 5.8-12(BMC는 최종원칙 승인)
 - 컨셉노트 결정일 : 5.15(프로그램감독자(PO)는 결과에 대한 조

언을 받음, PO는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 시작)

-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일 : 6.15(사무국에 이 날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포럼 승인 시작), 7.6(PD는 PMU에게 품질평가를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
- BMC 프로젝트 제안 승인일 : 8-9월(BMC 최종 승인, 프로젝트 실행 시작)

○ 2022년도 프로젝트 데이터 - APEC 전체 포라 프로젝트 현황

- 위원회별 컨셉노트 현황

- SCE : 74건 / CTI : 30건 / EC : 5건 / FMP : 1건

포럼	HRDWG 인적자원개발	PPSTI 과학기술혁신	SMEWG 중소기업	EWG 에너지	HWG 헬스	SCSC 관세절차	DESG 디지털경제	EPWG 긴급대응	OFWG 해양수산	CTI 무역투자위원회	TPTWG	EC 경제위원회	CD	GOS 서비스	PPWE 여성및경제	EGILAT	SCCP	IEG 투자	TWG 관광	ATCWG 농업기술	BMG	CPLG	FMP 재무부	MAG 시장접근성
컨셉 노트 건수	12	11	10	8	8	7	6	6	6	5	5	4	3	3	3	2	2	2	2	1	1	1	1	1

○ 2022년도 프로젝트 완료 현황 (2021.9 ~ 2022.10)

- 동 기간 동안 완료된 프로젝트는 총 105건으로, 이것은 2021년과 비교할 때 2.6배 많은 수치로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실행계획들이 재개된 결과임
- APEC 펀딩 총 \$8.61백만달러 중 33%가 사용되었고, 프로젝트

에 있어 상위 3개의 우선순위는 지속가능한 성장(39%), 포괄적 성장(37%), 디지털 경제(20%), 였고, 전체 프로젝트의 51%(20개)가 APEC 개도국에 의해 수행되었음

- 프로젝트 총 참가자는 12,685명으로, 133건의 능력개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77%는 가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평균적으로 각 회의 당 12개 경제주체가 참가하였고, 여행가능 국가에서 63%의 참가자가 참가하였는데, 그 중 거의 절반은 프로젝트 개최국의 국내 참가자였으며, 여성참가자의 비중은 55%로 2년 연속 남성 참가자수를 넘어섰음

○ 2022년도 APEC 프로젝트 장기 평가

<평가 개요>

- 프로젝트 종료 이후 프로젝트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평가
- 총 20% 응답률, 프로젝트 관리자(PO) 대상 1회, 프로젝트 참가자(PP) 대상 1회 실시함. 5,823명의 PO, P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O의 68%, PP의 20%가 응답함
- 57개 APEC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15개의 위원회 및 서브포라가 조사에 참여함

<핵심 결과 - 긍정적인 추세>

- 프로젝트 참여자의 65%가 프로젝트의 주제 또는 이슈를 조직 또는 경제주체의 '최우선' 또는 '중요' 우선순위로 평가함
- 프로젝트 참여자의 57%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학습 및 리소스를 업무에 적용함

- 프로젝트 참여자의 84%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 정보 및 리소스를 동료들과 공유함
- 프로젝트 참여자의 47%가 프로젝트 참여로 자국 경제의 정책이나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변함

<핵심 결과 - 개선할 점>

- 프로젝트 참여자의 27%가 프로젝트 주제 또는 이슈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평가함
 - 프로젝트 참여자의 40%가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정책이나 관행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프로젝트 감독자(PO)의 70%가 이전 프로젝트 작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일회성' 프로젝트를 제공하였음(시리즈로 제공되거나 이전 작업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음)
- APEC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APAS) 개통 : APEC 프로젝트 제출 및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 현대화 : 이메일을 통해 APEC 기금을 신청하는 기존 방식을 자동화된 온라인 프로세스와 데이터 중앙 집중화를 통해 현대화함
 - 효율성 : 데이터가 저장되고 여러 양식에 복사됨. 다음 작업에 대한 전자알림이 자동으로 수신되어 사용자의 시간과 자원이 절약됨
 - 데이터 접근성 : 프로젝트 데이터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함으로써 사무국에서 적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효율적인 데이터 추출을 통해 평가 및 분석의 개선을 지원
- APAS에 의한 프로젝트 세션 2의 제출 및 승인 날짜
- 컨셉노트 내부 제출 마감일

: 6.19(이메일을 통해 PD에게 제출) → 7.14(PD는 이 날짜까지 승인된 컨셉노트를 APAS에 업로드) → 7.18(PD는 이 날짜까지 승인된 컨셉노트를 APAS를 통해 PMU에 제출함)

- 프로젝트 제안 마감일

: 9.20(프로그램 감독자는 이 날짜까지 APAS를 통해 PD에게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 → 10.13(프로젝트 감독자는 이 날짜까지 프로젝트 제안서를 APAS를 통해 PD에게 제출) → 10월~12월 (BMC는 APAS를 통해 프로젝트 감독자에게 최종 승인을 알림)

○ APEC 프로젝트 품질 향상을 위한 팁

- 프로젝트가 다음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셉노트를 주의깊게 검토할 것

- 명확한 목표 및 역량 강화 목표를 가질 것
- 포럼의 업무계획과 일치할 것
- APEC의 임무와 현재 전략(특히 푸트라자야 비전)에 부합할 것.
“왜 APEC이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자금원이어야 하는지” 고려할 것
- APEC 경제주체의 참여에 있어 역량개발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혜자 그룹을 식별할 것

- 프로젝트는 다음의 사항을 하지 않을 것

- 포럼에서 수행된 예전 프로젝트 업무를 복제함(다만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 흐름을 장기적 목표로 발전시킬 수 있음)

- APEC에 대한 지적재산권 책임 또는 평판의 위험이 있을 것
- APEC 편당 ACTWG 프로젝트
 - ACT 01 2021 '투명성을 위한 기술: 부패에 대한 디지털 혁신 워크숍(태국 반부패위원회 주관) : 완료됨
 - ACT 02 2021 '부패와의 싸움에 있어 미디어의 권한 강화에 대한 패널토의'(태국 반부패위원회 주관) : 완료됨(PMU 검토 중)
- ACTWG 자체 편당 프로젝트
 - ACT 01 2020S '상호법률지원강화를 통한 조세피난처 거부 워크숍' : 연기됨
 - ACT 02 2020S '윤리적 비니지스 장려를 위한 정부 전략에 관한 민관대화' : 연기됨, PO는 2023년 8월에 개최희망
 - ACT 03 2020S '보이지 않는 손 폭로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수익적 소유권 은닉에 대처하는 방법' : 완료됨
 - ACT 01 2021S '위기 상황에서의 부패방지 워크숍' : 완료됨
 - ACT 01 2023S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APEC 원칙 워크숍 : 현황 파악' : 2023. 2. 17 개최

□ 안건 3 : 2022년 ACTWG 의장 보고

- 전 의장인 태국 반부패위원장의 2022년도 ACTWG 업무 성과 발표

□ 안건 4 : APEC 업무 - 주최국 우선순위 보고

- 미국은 2023년도 APEC 주제로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 : 상호연결, 혁신, 포용(Interconnected, Innovative, Inclusive)”을 제시
 - 상호연결 :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회복탄력성 있고 상호 연결된 지역을 구축
 -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 서비스 무역 강화
 - ▶ 디지털 무역 촉진
 - ▶ 국경을 넘는 여행 재개
 - ▶ 인프라 및 교통망 강화
 - ▶ 헬스 시스템 강화
 - ▶ FTAAP 의제 작업계획 이행
 - ▶ WTO 지원
 - 혁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환경의 활성화
 - ▶ 기후변화 완화 및 회복탄력성 향상
 - ▶ 재해위험 감소 및 비상대비 및 대응 개선
 - ▶ 디지털 경제 촉진 및 디지털화 강화
 - ▶ 식량 안보, 식품 안전 및 농업 생명공학 촉진
 - ▶ 환경문제 해결
 - ▶ 활성화 환경의 조성
 -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 강화
 - ▶ 성평등 증진

- ▶ 중소기업 강화
- ▶ 무역에 있어서의 포함 문제 해결
- ▶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 잠재력과 기회의 확대
- ▶ 노동자 권익 강화
- ▶ 역사적으로 권익보호 및 대표성에서 소외된 인구 집단의 참여

○ 2023년도 행사 일정

- 22.12.7-9 :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하와이 호놀룰루
- 23.2.14-28 :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SOM1), 재무 및 중앙은행 차관회의,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 23.5.14 :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SOM2), 교통장관회의(TMM), 무역담당장관(MRT) 회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 23.7.29 :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SOM3), 고위 재무관 회의(SFOM), 고위재난관리관료포럼(SDMOF), 중소기업장관회의, 여성과 경제포럼(WEF), 에너지장관회의(EMM), 건강과 경제에 관한 고위급 회의(HLMHE), 워싱턴주 시애틀
- 23.11. : 재무장관회의(FMM), APEC 정상회의, 샌프란시스코

□ **안건 5 : ACTWG 2023년도 업무계획**

- (개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서 APEC 정상들은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탄력성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음. 푸트라자야 비전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의 이행계획에는 “APEC 포럼과 하위 포럼은 업무계획

과 전략계획에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이행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계획에 따라 2023년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는 부패척결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산티아고 약속, 부패척결에 대한 베이징 선언, 부패척결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APEC 행동방침 등 기존 APEC 반부패 약속과 UNCAC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지난 몇 년간 도입했던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계속 추진할 것임

ACTWG는 회의, 교육,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기타 대화 수단을 통해 회원국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3-26년 다년도 전략계획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2023년 ACTWG는 회의 및 기타 활동을 통해 APEC 하위 포럼 전반의 반부패 우선순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반부패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임. 반부패 로드맵은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촉진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에 기여할 것임

또한 ACTWG는 정책, 법률, 규정 및 관행의 장벽을 낮추고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라세레나 로드맵의 우선순위에 기여할 것임. 따라서 성별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반부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서 여성의 권한 부여와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APEC 경제 및 법 집행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킴.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모든 수준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부
패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함

상호연결성, 혁신성,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와 함께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라는 APEC 2023의 주제
에 따라 ACTWG는 다른 정부 간 기관 및 다자간, 지역 및 국제기구,
포럼과 협력하여 위임사항(ToR)을 이행하고 민관파트너십, 시민사회
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가 부패예방 및 퇴치를 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임

또한 ACTWG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APEC 포럼과 협력하고, 공공부문의 개인 및 단체, NGO, 시
민사회 등 보다 광범위한 경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임

○ 2023년 포럼 거버넌스

- 2023년 두 차례의 ACTWG 총회를 개최 : 2023. 2월 36차 회의,
2023. 7월말-8월 초 37차 회의
- 2023년 ACT-NET 총회 1회 개최 : 2023년 2월 ACT-NET 10차 회의
- 2023년 ACTWG 업무계획 개발(2023. 2월초까지 ACTWG의 회기
별 승인 후, 2023년 2월 SOM1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APEC
SCE에 제출)
-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2023-26년 ACTWG 다년도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선순위 활동(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포함)을 논의
- 2023. 10월 ACTWG 의장국이 새로운 의장국 형태의 개최국으로
전환되는 과정

- 2023. 9-10월 그룹별 승인을 위한 연례 포럼 보고서 초안 작성 (SCE의 요구사항에 따라)
- 라세레나 로드맵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상황을 격년으로 보고하는데 기여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한 격년 보고에 기여함

□ **안건 7 : ACTWG 업무 -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ACTWG 2023-2026 전략계획 구현**

○ 배경

- 2002년 이후 APEC 정상들은 부패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인식하고 APEC 경제주체들이 부패예방 및 근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굿 거버넌스, 경제발전 및 번영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ACT TF는 "부패퇴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공약"과 "부패퇴치 및 투명성 보장에 관한 APEC 행동방침"에 대한 정상들의 승인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됨. 2010년 ACTWG는 장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업무 프로그램을 공식화할 권한을 가진 고위 관리에 의해 설립됨. ACTWG는 모든 관심 있는 APEC 회원국, APEC 옵서버 (ASEAN, 태평양 제도 포럼,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의 반부패 전문가 및 법 집행 공무원, APEC 사무국 및 APEC 비즈니스 자문단 대표단들에게 열려있음. 기타 이해관계 단체 또는 당사자는 ACTWG의 사전승인을 받아 ACTWG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ACTWG는 APEC 개최국 경제주체가 순환하여 의장을 맡음. 개

최국 경제주체에서 의장을 뽑는 것은 각 개최국 경제주체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ACTWG 내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공함. 순환 리더십은 또한 APEC 및 개최국 경제주체에게 강력하고 실용적인 반부패 성과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ACTWG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탄력성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Aotearoa 행동계획의 이행을 포함하여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에 기여할 것임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우리의 비전은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2040년까지 열려있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이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의 APEC의 고유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수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기구로서의 APEC의 지속적인 개선을 수용할 것임.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 책임 공유, 상호 존중, 공동 관심 및 공동 이익의 정신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전시킬 것임”

- 부패퇴치를 위한 APEC 고위 지도자들의 약속은 2021년 Aotearoa 행동계획에서 다시 명시됨

Aotearoa 행동계획 :

“반부패에 관한 APEC 베이징 선언, 반부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공약, APEC 통합 반테러리즘 및 안전무역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성장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 전략적 비전

- ACTWG 회원들은 부패방지 및 퇴치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여 우리 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APEC 공동체를 구상한다. 모든 회원국이 현재 및 새롭게 대두되는 모든 반부패 도전과제에 대해 잘 준비하고 강력한 반부패 법률 및 시스템으로 APEC 지역의 안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 전략적 방향

- APEC 반부패 및 투명성 약속을 조정하고 이행함. 여기에는 부패퇴치 및 투명성 확립을 위한 산티아고 공약, 부패퇴치 및 투명성 보장에 관한 APEC 행동방침, APEC 투명성 표준, APEC 공무원 행동원칙, APEC 기업 행동강령, 부패퇴치에 관한 APEC 베이징 선언, 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세레나 로드맵 및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적절한 경우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포함) 포함됨
- 국내 반부패 협약 이행 및 부패퇴치,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공적인 관행 촉진에 대해 반부패 전문가들 간에 정보를 교환함
- 기술지원, 범죄인 인도, 상호 법적 지원, 사법 및 법 집행, 자산 몰수 및 회복을 포함하여 부패 퇴치를 위한 회원 간의 협력을 촉진함
- 공사 간 파트너십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체가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회원국들의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촉진함

○ 핵심 성공 요인

- 전략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함
 - ACTWG 위임 사항(ToR) 2022-2025
 - Aotearoa 실행계획을 통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지속적인 우선순위
-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은 부록에 기재됨
- ACTWG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2022-2025)
 - 조세피난처 거부, 자산회복, 상호 법적지원, 공동 또는 병행 조사 및 기소와 같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개선함
 -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목표 역량강화 및 결과지향적 기술지원을 개발함
 - 반부패 및 투명성 활동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다자간 및 각국 정부 간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함
 - APEC 전반에 걸쳐 반부패 및 투명성 활동에 있어 포라간 교차 협업에 참여함
 - APEC 경제주체 내에서 반부패 정책, 이니셔티브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림
 - 기술, 위기·비상상황 또는 변화하는 환경과 같은 새롭고 새로 출현하는 반부패 문제를 해결함
- Aotearoa 실행계획을 통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otearoa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구현에 기여함
- 지속적인 우선순위
 -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관련된 공약을 포함하여 부패를 퇴

- 치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APEC 공약을 적절하게 이행함
- ACTWG의 약속과 조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행을 이해함
- ACT-NET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
- ACTWG와 ACT-NET 활동이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포용적 성장(2019-2030)을 위한 라세레나 로드맵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기회를 식별하고 추구함
- ACTWG와 ACT-NET 활동의 연간 연속성을 위해 의장에 자문 역할을 제공하는 의장의 친구들(FoC) 포럼을 활용함

□ 안건 8 : ACTWG를 위한 진행 중/제안된 프로젝트 보고

▶ 중국

○ ACT-NET 웹사이트 구축 제안

- APEC 웹사이트 내에서 ACT-NET 전용 웹페이지 생성을 제안함. 웹페이지 런칭 준비를 위해 프로젝트 감독관(PO)이 필요함. 의장국 또는 관심 있는 경제주체는 ACTWG PD의 도움을 받아 PO 역할을 맡아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음
- ACT-NET 웹페이지가 생성되면 동 사이트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웹페이지 관리자가 지정됨. ACTWG PD는 관심있는 경제주체의 도움을 받아 웹사이트 관리자 역할을 맡도록 제안됨
-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는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분류 및 관리됨. 첫 번째 단계에서 관리자는 순환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음

- ① ACT-NET 회의 및 행사 정보
- ② ACT-NET 간행물/문서/지식
- ③ ACT-NET 회원의 기본 정보(예: 중국 국가감독위원회)

두 번째 단계에서 ACT-NET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① ACT-NET 회원의 자세한 정보 및 연락처 목록(이름, 이메일주소 등)
- ②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협력 사례에 대한 정보는 회원 경제주체가 준비하고 제출한 후 관리자가 입력 및 동의를 위해 모든 회원에게 회람함(ACTWG PD를 통해)

- 웹사이트는 사용하기 쉬운 콘텐츠 관리시스템(CMS)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할수 있음. 동 웹사이트가 APEC.org 플랫폼 내에 설정되면 CMS가 제공되며 모든 신규관리자는 APEC CPAU(Communication and Public Affairs Unit)로부터 CMS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음. 관리자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CPAU 는 APEC의 지적 재산권 정책, 웹사이트 정책, 브랜딩 정책, 명명법 및 기타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알려야 하며, 관리자는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때 이러한 지침에 유의해야 함

- 제안 로드맵

- ① 37차 ACTWG 회의까지 동 제안 승인
- ② 38차 ACTWG 회의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PO 지정

③ ACT-NET 웹사이트 런칭 및 39차 회의까지 웹사이트 관리자 지정

▶ 미국

○ 뇌물방지 워크숍 제안

- 프로젝트 제목 :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법 시행에 관한 APEC 원칙: 현황조사
- 일시 : 2023. 2. 17
- 공동 후원 경제주체 : 뉴질랜드, 칠레, 호주
- 개요 : 2014년 중국의 APEC 개최 연도에 ACTWG 는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 방지법 시행에 관한 APEC 원칙과 함께 부패 척결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부록으로 채택함. 이러한 원칙은 APEC 경제 내에서 뇌물수수를 방지하고 국내 및 해외 뇌물 수수를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1) 확고한 입법체계 2) 효과적인 예방, 탐지 및 국내 조정 3) 효과적인 조사 및 기소; 4) 효과적인 자산 회수 및 국제 협력. 이러한 원칙이 개발된 이후 수년 동안 회원국과 국제 사회는 국내 및 해외 뇌물 수수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특히 효과적인 뇌물수수 영역에서 모범사례 식별과 특히 집행 프로그램 및 향후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이러한 APEC 원칙과 관련된 회원국의 노력을 조사하는 것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CTWG는 2014년 이후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방지법 시행에 대한 회원국의 노력을 반영하는 APEC 원칙과 관련된 간결한 현황조사 보고서를 생성할 예정임

- 목표 : 워크숍, 현황조사,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APEC 원칙 검토를 통해 뇌물방지법의 시행 및 집행에 대한 ACTWG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구축하여 뇌물수수를 방지하고 뇌물수수 및 관련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임. 2014년 원칙을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워크숍의 결과물로 실사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임

□ 안건 9 : 유엔반부패협약(UNCAC) 관련 반부패 진전 및 발전현황 보고

▶ 호주 보고

- 호주 정부는 국가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동 위원회는 장관, 국회의원, 공직자, 정부기관 계약자를 포함한 연방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립기관이 될 것임
-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이첩에 의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범죄행위를 포함한 사실조사 결과를 법집행기관에 회부할 수 있음. 위원회는 사법적 검토를 받게 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것임
- 호주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UNCAC 2주기 검토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공개법(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에 따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등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장관을 위한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연방사법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 간담회 및 새로운 국가 액션

플랜 개발을 통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음

▶ 칠레의 보고

- UNCAC 이행과 관련하여 칠레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자메이카, UNODC 대표단에 의한 2주기 검토가 실시되었고 곧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 칠레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및 투명성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자산회수 법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비리 전문 검찰청 신설도 검토하고 있음
- 3월 실소유주 등록에 관한 다자간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며,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임
- 칠레는 2023년에 청렴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출범시킬 예정으로 동 전략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에 관련된 5가지 주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중국의 보고

- 중국은 2016년 UNCAC 1주기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2주기 평가가 진행 중으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중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하고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법적 틀을 UNCAC와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동 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임

▶ 인도네시아의 보고

- 인도네시아는 다자 및 지역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음. G20에서 감사기관의 역할 강화 및 부패척결에 대한 고위급 원칙, 대중의 참여 및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모범사례,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위험 완화에 관한 비디오를 포함하여 여러 결과물을 산출하였음
-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항만관리 개선, 식료품 수출입을 위한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실소유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또한 인증시스템의 디지털화, 공직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을 포함하는 2023-24 실행계획을 시작하였음

▶ 한국 보고

- UNCAC 2주기 이행점검 수검현황, 2020-23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CPI·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설문조사 결과 및 UNDP 협업개도국 '청렴포털' 기술지원 사업현황 등에 대해 보고함(붙임 1)



▶ 말레이시아의 보고

- 말레이시아는 ASEAN 당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청각장애인이 부패를 신고하고 부패방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국회의원의 정당 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Covid-19 구호기금의 거짓 사용 및 남용을 조사하였음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5개년 국가 반부패 계획을 시행하여 115개 이니셔티브 중 37개를 완료하였고, MACC는 부패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MACC AR앱 개발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였음

▶ 대만의 보고

- 대만은 UNCAC 요구사항을 준수하고자 조달부문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청렴교육자료를 발간하고 국제협력 촉진,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등을 이행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고 다양한 부문에 걸친 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미국의 보고

- 미국은 2023.12.11.~15 기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10차 UNCAC 당사국총회(CoS)를 개최할 예정임
- 동 회의는 UNCAC의 20주년을 기념할 것이며, 미국은 UNCAC 당사국들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반부패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촉진하며,

자산회복, 금융 투명성 및 청렴성에 대한 글로벌 조치를 강화를 강조할 것임

- 미국은 회원 경제주체 각자의 반부패 노력이 부패와의 싸움을 상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APEC 경제주체들의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회의 및 부대행사에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에 곧 게시될 것임

□ 안건 10 : 2014 베이징 선언 이행에 대한 각국의 진전사항 보고

▶ 홍콩

- 홍콩 ICAC(부패방지위원회)는 베이징선언에 따라 부패와의 싸움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ICAC의 세 가지 초점 영역은 첫째, Covid-19 상황에서 국제협력, 둘째, 자산회복 및 범죄수익 환수, 셋째,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임
 - 이와 관련하여, ICAC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반부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고, 약 1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부패,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5월 IACA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부패척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등 일련의 활동을 조직할 계획임
- ICAC는 아태지역의 상대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베이징 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중국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보고에서 부패가 당의 청렴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가장 비윤리적이고 해로운 행동이라며 엄격하고 완전한 권한행사 및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중국 정부는 400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패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의함
 - 빈곤 퇴치 및 생계 프로그램에서 부패와 싸우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정 조치를 취하였음
- 중국은 반부패 교류와 협력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부패 및 자산 회수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치적 공감대 형성, 반부패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 학습,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상생협력 추구를 위한 다자주의 옹호 등을 제안함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부패당국과 법집행기관 간의 공식·비공식 국경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
 - MACC는 다중 관할권 부패 및 기업범죄 사건과 관련된 해외 수사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실행하였으며, 또한 외국 수사당국의 협력을 받아 부패 및 동세탁 혐의로 전 총리를 기소하였고,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상당액을 압류 및 몰수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부패와 범죄로부터 스포츠를 보호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관한 워크숍을 올해 개최할 예정임. 동 워크숍

은 반부패에 대한 인식 제고, 입법역량 강화, 법인에 대한 기소 및 상호 법적 공조에 대한 법집행기관 간의 대화가 포함됨

▶ 태국

- 태국은 부패수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산회수 사건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함. 중국, 한국, 미국에 부패 공무원을 찾기 위해 사법공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송환요청 작업 및 승진 수사과 관련된 증인 인터뷰를 비롯한 수사를 진행 중임

▶ 미국

- 미국 정부는 부패척결에 있어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공공부문에 외부 이해관계자 포함, 강력한 반부패 법집행 기관 구축과 같은 예방조치에 관한 투자가 법 집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믿음
- 한편 미국 법무부는 외국공직자의 부패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둑 정치 자산회복 이니셔티브(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은 요청 관할당국으로부터 16억 달러 이상을 반환하였음
 - 또한 미국은 기업 및 기타 단체가 회사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법금융 및 부패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미국 정부는 불투명한 기업구조를 악용한 Covid 구호 사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아동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한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사기범죄에 대해 47명을 기소하였음. 미국은 특정 부패 및 뇌물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UNCAC 협약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안건 11 : APEC 반부패 로드맵 제안

▶ 미국

- 미국은 유엔 반부패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약이 각 국의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왔으며, 이제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화하고자 APEC 반부패 로드맵 개발을 제안함
 - 동 로드맵이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 로드맵이 이전 약속들의 연속이 되어 APEC 내에서 반부패가 계속해서 우선 과제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될 것임
 - 이 로드맵에 대한 더 나은 이름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며, 기존의 ACTWG의 전략계획을 재수정할 의도는 아님을 분명히 함
- ⇒ 이에 대해 칠레·뉴질랜드는 동의와 협력의사를 표명하였고, 호주 역시 동의하며 동 논의에 여성 및 중소기업 서브포라와의 협력 및 동 주제를 로드맵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캐나다도 동의 의사를 표명함

- ⇒ 홍콩은 로드맵에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함
- ⇒ 중국은 새로운 로드맵이 기존의 여러 선언문과 현재의 전략계획 및 작업계획과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며 문서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기존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의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행 중심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회람할 것을 제시함

APEC 반부패 로드맵 제안

배경:

2023년, 유엔은 총회가 유엔반부패협약(UNCAC)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UNCAC는 지난 20년 동안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온 부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도구이며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UN반부패 당사국 회의(COSP)가 향후 20년 간의 UN반부패협약 이행을 기대함에 따라 APEC 커뮤니티도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행동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시의적절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APEC은 번영하고 평화로운 APEC 지역을 위한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 세계 부패 척결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부패 척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공약(2004), 부패 척결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APEC 행동 방침(2004), 부패 척결에 관한 베이징 선언(2014)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의 성명, 선언 및 원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0년 APEC 반부패 및 투명성 전문가 실무 그룹(ACTWG)의 창설은 지난 13년 동안 ACTWG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부패 척결에 대한 APEC의 약속을 입증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전방위적이며 APEC 작업 그룹 전체에서 다루는 문제 영역을 위협합니다. 투명성이 APEC의 포럼 및 하위 포럼에서 노력을 발전시키는 핵심 도구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APEC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국경을 초월하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미래의 반부패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CTWG는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를 촉진 및 방지하는 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젠더와 부패의 관계를 탐구하는 등 새로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개념:

이전 APEC 및 ACTWG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ACTWG가 APEC 반부패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로드맵은 반부패를 APEC 차원의 우선 순위로 격상하고 APEC 하위 포럼 전체에서 반부패 노력을 더 잘 통합하는 간결하고 행동 지향적인 문서(2-3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는 APEC 전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과제, 주요 활동 영역, 목표 또는 이정표를 식별합니다. 반부패 로드맵은 2004년 부패 척결 및 투명성 보장에 관한 APEC 행동 방침과 유사한 모델을 개발한 다른 APEC 하위 포럼, 가장 최근에는 여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La Serena 로드맵에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반부패 로드맵은 이전 ACTWG 노력을 대체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진전을 설명하고 더 큰 진전이 필요한 기존 공유 우선 순위와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행동 지침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식별합니다.(예: 잠재적으로 새롭고 떠오르는 도전과 관련됨) ACTWG 회원국은 다른 APEC 하위 포럼 및 관련 이해관계자(tbc)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우선 순위, 행동 영역 및 목표/이정표를 식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제안의 목표는 로드맵 개발에 대한 지원을 얻고 APEC 회원국이 합의 문서로 함께 초안을 작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의 우선 순위와 콘텐츠 범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반부패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아오테아로아 행동 계획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패 척결에 관한 베이징 선언 (2014) 이행에 대한 회원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채택된 ACTWG 전략 계획 2023-2026은 로드맵 개발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세스 및 제안 일정:

미국은 2월 초에 이 제안을 공유하고 2023년 2월 15-16일에 열리는 제36차 ACTWG 회의에서 ACTWG 경제에 로드맵 개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CTWG 회의에서 미국은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회원국을 식별할 것입니다. 제안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회원국은 2월 말까지 서면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은 로드맵의 초안 개요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피드백을 통합할 것입니다. 목표는 4월 중순까지 APEC ACTWG 회원국과 회기간 동안 첫 번째 초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ACTWG 회원은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며 의장은 잠재적으로 문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가상 의장 친구 회의를 개최합니다. 6월 중순까지 ACTWG는 검토를 위해 다른 APEC 하위 포럼과 로드맵 초안을 공유합니다. 가상 다중 이해관계자 회의도 이 기간 동안 열릴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SOM3 회의는 이해결 텍스트 토론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드맵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운영위원회에도 보내질 것입니다. ACTWG는 2023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로드맵 채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채택 후 APEC 회원국은 반부패 로드맵 개념을 2023년 12월 10차 회의의 회의실 문서로 UNCAC 당사국총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다른 회원국이 역내에서의 반부패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ACTWG의 기여의 예로서 UNCAC 당사국총회의 부대행사를 조직하고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안건 12 : ACTWG 업무 - 부패의 경제적 영향과 민간부문 참여

▶ 호주

- 호주의 Business Partnership Network(BPN)는 기업들이 뇌물 및 부패와 싸울 수 있도록 가이드, 트레이닝 모듈, 비디오와 같은 무료 온라인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음. BPN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증진하고 교육하고자 이벤트와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했음. BPN의 목표는 민간부문을 위한 리소스 및 실천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조직이 되는 것임. BPN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며, 해당 리소스는 다른 국가에서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음

▶ 칠레

- 칠레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이니셔티브 및 참여에 관해 발표함. 첫 번째로 30개 이상 국가의 국가기관, 민간단체, 다자간 아카데미 기관 및 시민사회로 구성된 다부문 실무그룹인 반부패 연합으로, 동 연합의 목표는 공공부문에 윤리강령 도입 등 UNCAC 이행을 촉진하는 것임. 두 번째로 보건 분야 윤리를 위한 합의 프레임워크로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에서 윤리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임. 세 번째로 빈곤, 청렴성, 공공접근성, 부패방지 매커니즘, 부패퇴치를 위한 기술의 활용에 관해 발표하는 the 1st People's Congress에 대해 소개함

▶ 중국

- 중국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함. 2012년 이후 빈곤퇴치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이 오용되거나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캠페인, 조사, 공공감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음. 동 프로그램에서 부패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활용의 예로 One Part for All 플랫폼이 여러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자금 횡령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함

▶ 한국

- 한국정부의 기업윤리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윤리경영 지원 필요성,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인식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 교육실시 현황 및 내용, 공공기관 대상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및 기업의 반응, 향후 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개발계획 등에 대해 발표함(붙임 2)



▶ 인도네시아

- KPK는 산하에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기업 반부패국’을 설립함. 동 부서의 목표는 뇌물·금품수수, 갈취 등 부패가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2022년 12월말까지 기업 반부패국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사업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여러 규정제정을 촉진하고 성공적으로 독려하였음. KPK가 마련한 ‘민간부문 반부패 가이드라인’과 같은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올해부터 동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또한 인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The Advocacy Committee는 보건, 금융, 플랜테이션, 임업, 관광, 에너지 등 여러 부문을 관리함. 위원회는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됨. 동 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비즈니스 행위자와 관련 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의 부패방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는 청렴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 동 이니셔티브는 2021년 4월 재무부가 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면제를 승인한데 따른 것임
- MACC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을 설명하는 지침을 개발하였음. 동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이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해야 함.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현재의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 않아야 함.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핵심 영업을 대표해서는 안되며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말레이시아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또는 사업체 등 5가지 주요 범주로 잠재적 지원 대상자를 분류함. 동 프로그램은 기업 또는 민간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조직적인 반부패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임. 동 인센티브는 2021년 소득세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미국

-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에서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 결과를 소개함
-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성숙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직원을 더 고용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해외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시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 또한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43%가 팬데믹 기간 동안 윤리 리소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과 사회에서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이와 같은 투자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확인됨

□ 안건 14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보고

▶ OECD

- OECD WGB(뇌물방지 실무협의단) 활동에 소개함. 동 실무협의단은 약 30년 동안 부패가 비즈니스에 비용을 추가하고 경제 및 사회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조사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 동 협의단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구축해 왔음
 - 뇌물방지 실무협의단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동료평가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1999년부터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2021년 반부패 분야의 핵심이 된 새로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포함하여 뇌물수수 방지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였음
 - 또한 성공적으로 종결된 사건 중 80%가 비재판적 해결을 사용하는 등 뇌물방지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기업이 내부통제, 윤리 및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함
 -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범 집행 당국 간의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있으며, 동 실무협의단은 실무자 간의 실무적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자체 범집행 공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 올해는 UNCAC 20주년이며,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약속과 예방 및 기소에 중점을 두는 등 부패와의 싸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 올해 11월 애틀랜타에서 UNCAC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유엔은 동료평가 매커니즘을 통해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정보공유 및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플랫폼이 구축되었음
 - 남미·멕시코 플랫폼의 우선순위 영역은 반부패, 청렴성 및 투명성시스템, 사법시스템의 반부패, 모든 행동에서 인권 및 젠더 관점의 채택 등이며, 더 강력한 반부패 개입을 위한 기술의 활용 및 정보에 입각한 반부패 정책을 위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 생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
 - 동남아시아 플랫폼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부패수사 및 기소, 국가역량 강화, 내부 조정 및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Ⅲ. 양자회의 내용

□ 美 국무부

- 일시 : ' 23. 2. 16, 13:30 - 14:00 (약 30분간 진행)
 - 참석자: (Mr.)Richard M. Nephew 글로벌 반부패조정관, (Ms.)Keri Weber Sikich 반부패자문관
 - 반부패 로드맵 관련
 - (미국) 오늘 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APEC 로드맵 및 각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하기 위함임.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하고 있고 제2차 정상회의를 공동 주관할 예정으로 이 문제에 있어 우리와 협업할 것이 많다고 생각함
 - (한국) ACTWG 전략계획과 로드맵의 차별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로드맵은 실행중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임. 한국은 미국의 로드맵 구상을 지지함. 다만 초안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함
 - (미국) : 로드맵은 전략계획과도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후속 주최국인 페루와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이 의장국 수행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의 우선순위와 잘 통합하고자 함
-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초안이 전체 그룹에 회람하기 전에 한국에 먼저 공유하여 견해를 듣고자 함

우리는 로드맵이 더 높은 수준(각료회의)에서 승인되기를 원함.
반부패에 대한 지도자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상적일 것임

○ 주요 주제 관련

-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소유주에 관한 것, FTI 문제, 재정투명성 등임
- (한국) 실소유주 문제는 법무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사항으로 이 문제는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 돌아가서 이 부분을 관계부처에 알리도록 하겠음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반부패 국가전략 수립을 언급함. 지난 몇 개월간 전략을 수립해 왔고 진전을 이뤄가고 있음. 현재 우리는 UNCAC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고 실무자 간의 대화를 증진하는 등의 실질적인 차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발표 자료

국문원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UNODC 사무국과 아이티와 사모아의 반부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의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실사결과와 제출된 서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주기 이행결과 요약보고서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실사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내·외부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는 법령과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사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

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기관당 평균 9.3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특별채용 공정성 제고 등 인사·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허위출장 방지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개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행해 왔고, 지난해에는 두 가지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경험에 대해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항목(60%)과 각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및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항목(40%) 점수를 합산한 것에서 각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10%+α)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그 결과가 언론에 공표되고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도 반영됩니다. 기관유형별로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시에 각급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에 반영하는 등 평가대상 기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평가지표가 확정되고 세부평가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각 기관들은 지표별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알고, 평가 결과 역시 세부항목별로 피평가기관에 제공되므로 각 기관이 어떠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로 건인되는 각 기관의 청렴도 제고노력은 결국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2002년부터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등 각 그룹별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2022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2022년 한국의 CPI 점수는 63점, 순위는 31위로 6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6년 청탁금지법,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의 보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노력,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의 적극적인 국민 참여 등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의 부패방지 노력과 이를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정착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11월 4,482명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를 차지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일반국민과 공직자 3,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약 68%, 공직자의 약 83%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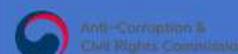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UN반부패협약 60조에 따른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처리결과 조회에서부터 신고에 따른 보호 및 보상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경험을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청렴포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술지원 대상국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이 선정되었고 국가별 UNDP 사무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집중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rea's UNCAC Implementation Status and Major Anti-Corruption Activities

The Korea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1

Thank you Mr. Chair,
and all participants from member econom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will report on Korea's implementation status of UNCAC.

In October 2022, the on-site inspection for the final stage of the second cycle review took place. Anti-corruption experts from UNODC, Haiti and Samoa visited Korea and reviewed Korea's implementation of UNCAC Chapter 2 and 5. The summary report is being prepared.

Korea has carried out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on a regular basis, and these evaluation measures stood out in the on-site inspection. This is what I am going to share.

“Corruption Risk Assessment” of by-laws of public institutions

- Concept: a preemptive corruption control system that identifies corruption-causing factors and recommends improvement in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 Period: 2020 – 2023 (Three-year period)
- Subject: 48,174 by-laws of 506 public institutions
- Result: 4,722 corruption risk factors were improved, an average of 9.3 cases per institution
- Major improvements
 -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measures against false business trips and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ps by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clarification of special employment standards,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research misconduct, and strengthened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major deliberation agency

Firstly, Korea has carried out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 since 2006, which is a preemptive corruption control system that identifies corruption-causing factors and recommends improvement in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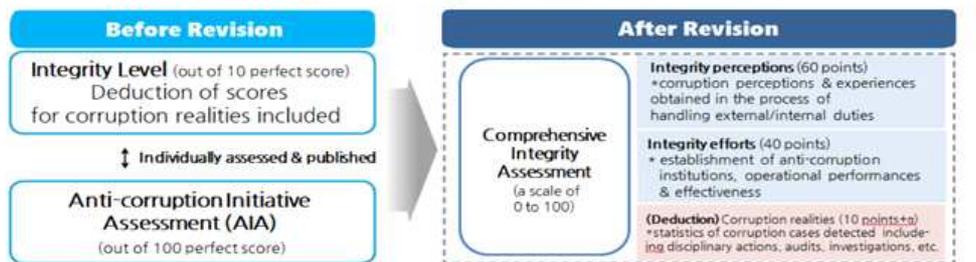
I’d like to introduce the assessment of by-laws of 506 public institutions from 2020 to 2022. Considering they are closely affecting people’s daily lives, it is notable that over 47 hundred corruption risk factors among about 48 thousand by-laws were identified and improved.

Making good practices such as the prevention of false business trips, Securing the fairness of employment, and promoting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these are the results of improvement.

2022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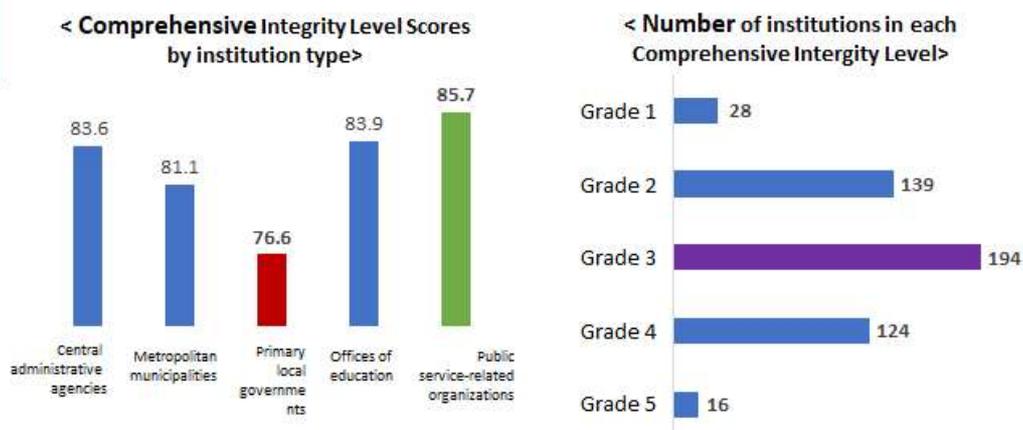
- Integration of the former assessment systems (Integrity Assessment and Anti-Corruption Initiatives Assessment) in 2022



Secondly, Korea has assessed the integrity level of each public institution as well as their efforts to become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organizations. These two assessmen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2.

Last year, they were integrated into the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That's why the word 'comprehensive' was added. This reflects the aggregation of scores of "Integrity perceptions" accounting for 60% based on stakeholder survey and "Integrity efforts" accounting for 40%. Deduction based on corruption cases accounts for 10% plus extra.

The Result of 2022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Among 501 public institutions, each organization is positioned into a grade from 1 to 5. 1 is the best, 5 is the worst. The result is made public in media by types of institutions as well as individual institution, and reflect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By types of institutions,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verage score was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recorded the lowest scor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each institution can clearly understand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because indicators are decided based on a sufficient amount of communications. After the grade is announced, it can receive specific feedback on which part it should complement with a detailed result report.

Considering each institution's commitment to raising their integrity level is the foundation of enhancing the whole public sector integrit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plays an important role to move forward.

Corruption Perception Level and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 **The result of the 2022 Corruption Perception Survey (Dec. 2022)**

→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es are corrupt**” among the general public **improved by 11.2%p** dropping from 49.8% in 2021 to **38.6%** in 2022

✓ **The result of the 202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Jan. 2023)**

→ **Rose to 63 points (Ranking 31st)** in 2022 from 62 points (Ranking 32nd) in 2021

◆ **Key Drivers**

- Collective efforts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 Determination and efforts for strict law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inciples



13

Thirdly, since 2002, Korea has surveyed citizens, business people, experts, and foreigners about their corruption perceptions and released the result. Last year, the citizens' corruption perception about public offices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Korea's 202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score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also rose to 63 points.

Collective efforts of all sectors such as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determination and efforts for strict law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inciples, these are the drivers of strengthening a culture of integrity across Korean society and recent perception improvement.

Achievement of
the Enactment
of Anti-
corruption Laws
in Korea

✓ The ACRC Act (2008)

✓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2011)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2016)

✓ The Public Fund Recovery Act (2020)

✓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2022)

-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Nov. 2022)
→ 91.2% of the population responded tha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positive effects on society."*
-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Dec. 2022)
→ 68% of the population and 83% of public officials responded that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is effective i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6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of important anti-corruption law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society.

According to recent surveys, 91 percent of over 44 hundred citizens answ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positive effects on society". Among over 3 thousand respondents, 68 percent of citizens and 83 percent of public officials answered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is effective."

“Clean Port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in cooperation with UNDP

- With the extension of the ACRC-UNDP MOU (Dec. 2021), a new project of sharing Clean Portal with developing economies was launched in 2022
- Mongolia, Uzbekistan, and Kosovo were selected. (Sept. 21, 2022)
- Project inception meeting (Nov. 3, 2022)
- Webinar (Feb. 14-16, 2023)



Lastly, Korea has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UNCAC.

“Clean Portal” is a digital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ing system. It allows citizens to easily and conveniently report online corrupt behaviors and violation of public interest. Once the report is received, related services for the reporter is provided on the same platform such as notification of the case process, application of protection and rewards.

ACRC and UNDP have cooperated for sharing “Clean Portal” project with developing countries since last year. In September, three economies were selected as knowledge sharing partner, and this yea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will be given with the networks of each UNDP country office.

Thank you.

한국의 윤리경영 정책지원 현황 발표 자료

국문원본

〈한국의 윤리경영 정책지원 현황〉

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부패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윤리경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2002년 제정된 한국의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책무로서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하는 한편, 기업의 의무로서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정부의 윤리경영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와 관련해 한국투명성기구는 “기업이 스스로 윤리경영에 나서야 하겠지만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사회의 감시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청사항으로 인식됩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현황과 인지도 제고 노력입니다.

지난 해 11월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2%가 “윤리경영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부패 예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응답하여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2005년부터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월 윤리경영 정보지를 발간하여 민간기업, 경제단체, 학교, 윤리경영 업무 담당자 등 약 7,900곳에 배포해 왔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업의 윤리부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위직, 실무자, 사업유형별 등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윤리경영 표준강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 42회, 6,836명에 대해 청

렴윤리경영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윤리경영의 개념에서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 및 활동을 통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운영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해 6월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 5개 대분류 하에 고위직의 약속과 헌신,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권한 부여,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 리스크 경감조치, 청렴윤리경영 교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공공기관 20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직접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서는 전담조직과 부패 리스크 관리자 지정, 부패리스크 식별 및 개선 착수 등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공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제단체와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제 투자 과정에서 기업에 CP실적을 요구하는 추세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CP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하였고, 지멘스는 “아직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만

배포되었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한 제도”라 평가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반부패 역량이 부족한 기업 대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기업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상의 공공기관 대상 윤리경영 지원에 대한 민간부문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제시된 윤리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고, 거버넌스(리더십), 정책 및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고위험 영역 관리, 제3자 관리, CP문화, 모니터링 및 조치, 공개 및 기록보관 등을 핵심 요소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윤리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투자, 수출, 공공조달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 법인 책임감경 또는 면책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국내적 맥락이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계신 각 경제주체들과도 가능한 범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rean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Business Ethics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upport business ethics which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growth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m going to briefly explain it, and I have to admit there still remains a long way to go.

1. Grounds for and necess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ethical management

1 Legal grounds

-The ACRC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Paragraph 1. A public institution shall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strive to prevent corruption to create sound social ethics.

-The ACRC Act Article 5. Duties of Enterprises: An enterprise shall establish a sound trade order as well as business ethic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corrup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ACRC Act Article 3. Support, etc. for Ethical Business Managemen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y provide support, cooperation, etc. for the ethical management of enterprises to ensure that they may effectively entrench their business ethics under Article 5 of the Act.

2 Necessity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s analysis of the 2022 CPI result(excerpt): "While businesses should carry out ethical management on their own,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ethical management compliance** and social monitoring and support should be systematically provided."

- First, Legal grounds. The Anti-Corruption Act enacted in 2002 stipulates duti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regarding social and business ethics. Article 5 says "An enterprise shall establish a sound trade order as well as business ethic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corruption."
- In 2008,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ethical management was clarified.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tipulat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y provide support, cooperation for the ethical management of enterprises to ensure that they may effectively entrench their business ethics under Article 5 of the Act."
- Second, Necessity.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analyzed the recently released 202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and announced that "While businesses should carry out ethical management on their own,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ethical management compliance should be provided."

2. Current status of the awareness of ethical management and efforts to raise the awareness

1 Public expectation

- According to a survey involving 1,134 citizens, carried out on November 15 to 30, 2022, the response (Strongly Agree + Agree) of "ethical management would help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accounted for 86.2%.

2 Ethical management magazine (distributed monthly)

- Issues Ethical Management Briefs monthly and distributes them to more than 7,900 targets,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economic organizations, schools, and people in charge of ethical management.
- Shares latest trends and news, such as an interview with an ethical management specialist, in an easy-to-understand way

3 Ethical management training

- Anti-Corruption Training Institute provides ethical management training fo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state-owned companies and business people
- Develops and utilizes standard teaching materials for ethical management training programs
- Provided training for 6,836 trainees through 42 programs (24 visiting programs, 18 in-house program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public survey in November last year, about 86 percent of over 1 thousand respondents answered "ethical management would help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It shows people's awareness is very high.
- ACRC has made efforts to raise people's awareness.
 - Firstly, the ethical management magazine has been published monthly since 2005. It is sent to more than 79 hundred targets and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business ethics. It consists of the latest trends and news in this field, and it is written in an easy-to-understand way.
 - Secondly, since 2009, the ACRC has provided ethical management training. Since last year, Anti-Corruption Training Institute of ACRC has provided more professional and detailed ethical management training programs. Standard teaching materials were developed and tailored to positions of trainees and types of business. Last year, over 68 hundred people were provided with 42 programs, which consisted of various cases and activities, from the concept of ethical management to compliance program, and can be utilized at working-level.

3. Operational support for ethical management

1

For public institutions

- Distributed "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for State-Owned Enterprises" in June 2022
- Five Pillars: Environment development, Corruption risk mapp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rruption risk, Monitoring and improvement, and Restrictions and incentives.
- Provided training and consulting for 20 institutions, including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s trial operation.



- Positive effects that bring practical changes, such as identification and mitigation of corruption risk
-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Designated the Legal Compliance and Ethics Division as the task force, appointed one person in charge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for each of the 55 divisions at the headquarter, and carried out measures to mitigate identified risks by each division
-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Designated the Ethical Management Division as the task force, appointed 117 corruption risk managers, identified 174 risks, and released risk management cards on the intranet

- For public institutions, The 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June last year.
- This Guideline consists of 5 categories, including Environment Development, Corruption Risk Mapp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rruption Risk, Monitoring and Improvement, and Restrictions and Incentives
 - There are 21 sub-categories, and each of them has multiple indicators and detailed criteria. Commitment by high-ranking officials, operation of responsible unit for CP, identification of corruption risks and measures of mitigating the risks, training, reporting misconduct and investigation,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P, these are examples of sub-categories.
- 20 large public institutions for trial operation were selected and provided with training and consulting, and positive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os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designating responsible unit and managers of corruption risks and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 of corruption risks.

3. Operational support for ethical management

2

For businesses

- Assessment of guidelines for public institutions done by economic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 LG Energy Solution: "Businesses could become more responsive with the 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Guideline for State-Owned Enterprises as the performance of CP has been required in the course of global investment."
- Siemens: "Though only guide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are distributed, it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ivate enterprises could also utilize it."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t is meaningful in terms of support for businesses as it provides proposals of methodologies for companies that lack anti-corruption capacity."



- Carries out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ivate Enterprises in 2023
- Plans to include core elements, including governance(leadership), policies and procedure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management of high-risk sectors, management of the third party, a culture of CP, monitoring and measures, and disclosure and archiving
- Considers incentiv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CP

- The Guideline for public institutions got positive responses from private sector.
 - Siemens said "though only guideline for state-owned enterprises are distributed, it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ivate enterprises could also utilize i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id "it is meaningful in terms of support for businesses as it provides methodologies for companies that lack anti-corruption capacity."
- Now, ACRC plans to play an active role to support business ethics this year.
 -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f a guideline for private enterprises will be performed considering core elements, such as leadership, policies and procedure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 culture of CP, monitoring and measures, and disclosure.
 - It's also important to figure out proper incentives in the Korean context. It will be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part in the procedure of development of the guideline as Korean legal context is quite different.
 -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make efforts to spread ethical management and closely cooperate with other member economies recognizing domestic contexts may differ.
- Thank you for paying attention.